

친문 vs 호남 황금분할... 본경선은 경륜 vs 패기

민주 당대표 선거 김진표·송영길·이해찬 컷오프 통과 배경과 전망

이번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들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8·25 전당대회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본경선에 나갈 최종 후보로 친문(친문재인) 후보인 7선 이해찬(66), 4선 김진표(71) 의원과 범친문이자 유일한 호남 후보인 4선 송영길(56) 의원 등 3명을 선택했다. 이른바 '황금 분할'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8명의 당대표 후보 가운데 5선 이종걸(61)·4선 최재성(52)·3선 이인영(54)·제선 박범계(55)·초선 김두관(59) 의원 등 5명은 아쉽게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 당은 본경선에 미치는 영향을 막기 위해 예비경선 성적표를 공개하지 않았다.

◇황금 분할=현재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측 인사와 호남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지난 6월 지방선거 결과,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며 친문세력이 더욱 강해졌지만 수도권에서 승리한 인사들의 상당수가 호남 출신이어서 민주당 내 호남의 영향력은 여전히 높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따라서 이날 예비경선 결과는 이런 당의 세력 지도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다. 애초 당 일각에서는 예비경선에서 친문후보들이 3자리를 모두 채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또 당 일각에서는 호남의 영향력이 약화하면서 이종걸·이인영·김두관 의원이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애초 3강으로 좁았던 김진표·송영길·이해찬 의원(이상

민주당내 호남 영향력 여전히

호남·충청·경기 지역 조화

친문표 분산엔 宋 이변 가능성

기호 순)의 승리로 끝났다.

이날 예비경선 결과는 민주당 중앙위원들이 친문인사를 뽑아서 문 대통령을 돕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한편 당의 텃밭인 호남의 인사를 선택해 당 미래의 환권을 채우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적으로도 호남에 충청(이해찬)과 경기(김진표)가 조화를 이룬 형국이라는 분석이다.

◇경륜이나 세대 교체나=한달 후 펼쳐질 본경선은 경륜과 패기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김진표 의원은 70대 부총리를 지냈으며, 이해찬 의원은 60대 중반에 국무총리 경력이 위압적이다. 송영길 의원은 50대 중반이지만 4선에 인천시장을 지내 경력에서 부족함이 없다. 경륜을 갖춘 이·김 의원과 세대 교체를 외치는 패기의 송 의원의 대결구도가 그려진 것이다. 또 대결구도로 보기는 어렵지만 친문인사와 호남인사가 경쟁하는 모양새다. 역시 이·김 의원과 송 의원이 경쟁하는 형국이다.

일단, 친문세력이 표를 전략적으로 한 후보에 집중한다면 이·김 의원 한 명이 당 대표가 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친문세력의 표가 나뉘고 호남의 표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투표로 통해 예비경선을 통과한 3명의 후보가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표, 송영길, 이해찬 후보.

가 집중된다면 송 의원이 최종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또 본경선 과정에서 대의원들이 당의 향후 진로에 대해 안정과 혁신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차기 당권의 향배가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컷오프 결과 발표 직후 "민주당을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 '경제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원동지에게 설득해 내달 전당대회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새로운 민주당"이란 슬로건에 맞게 세대통합형 리더십을 보여주고, 최근까지 국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 정장외교를 뒷받침해온 만큼 청와대 및 정부와

잘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컷오프 통과 직후 별다른 말 없이 같은 시간 회의가 열리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풍부한 행정경험·인사청문회 통과 등 고려

이개호 농림장관 인선 배경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내각 첫 인선으로 이개호 의원을 농림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폭염에 따른 농축산업계 피해와 식품 위생 문제 등 당면한 현안들을 놓고 더 이상 소관부처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림부 장관 직은 전임 김영록 장관이 지난 3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한 뒤, 전남도지사에 당선되면서 4개월 넘도록 공석이었다.

또 국회 관례상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높고 이 의원이 행정과 정치 둘 다 경험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야로부터 협조를 얻기 유리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의원이 민주당의 원내 1당을 지키기 위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 도전을 과감하게 포기한 점도 감안됐다.

그동안 이 의원의 농림부 장관 임명은 지방선거 직후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으나 청와대의 협치 개각 논의가 맞물리면서 늦어졌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에 이어 위원장 직 무대행으로 활동하면서 농업인의 시각을 충실하게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쌀 값 회복을 위해 정부 측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구제역과 조류독감(AI),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는 축산 농가를 위한 소득보전 대책을 강도 높게 요구해왔다.

또 이상기온과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농가 경영 안정과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 분야 상생기금을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1조 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FTA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특히, 이 의원은 북미·남북 해빙 무드에 따라 남북 경협이 시작될 경우 첫 단계로 주목받는 남북 농업 협력에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대북 쌀 지원은 2010년 5·24 대북 제재 이후 중단됐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매년 40만t 상당을 지원한 바 있다. 대북 쌀 지원이 된다면 정부 비축량만 186만t에 달하는 심각한 쌀 재고를 축소함으로써 쌀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 의원은 장관 지명 직후,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농민의 눈 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치고 쌀 값 안정 등 농정 현안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우선 당면 현안인 폭염과 가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생태식물공원 등 현안 33건 국고 반영 요청

전남도·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전남도가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전남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전남도 간부들은 이날 서울에서 광주·전남지역 출신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고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남지역 여야 국회의원 10명과 지역 출신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과 영암출신 최운열(비례)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는 주승용(여수) 국회의장과 고희출신인 이동섭(비례)·여수 출신 최도자(비례)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목포)·이용주(여수)·정인화(광양·구례·곡성)·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윤영일(해남·완도·진도) 의원이 참석했고, 무소속 이정현(순천)·손금주(나주·화순) 의원도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2년 연속 정부 예산 6조원 이상이 반영됐다"면서 "올해도 힘을 모아 초당적으로 공동 대처해 지역 현안사업들이 국가 계획과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역 현안 33개 사업, 7214억원 규모의 국비 예산을 건의했다. 이날 건의한 현안 사업의 총사업비는 11조 1945억원에 달한다. 현안 사업 33개 가운데 신규 사업은 26건(1819억원)이며, 연속사업은 7건(5395억원)이다. 김 지사는 또 6건의 정책 지원도 건의했

다. 주요 국고지원 현안 건의사업은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및 에코 생태식물공원 조성 ▲서남해안 관광도로(완도·고흥) 건설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및 전철화 사업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 건립 ▲서남해안 해양관광벨트조성사업 지원 ▲국립삼남해안관찰원 설립 등 33건이다. 또한, 정책지원 사업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선도모델 육성 ▲차세대 ESS산업 생태계 구축 ▲한전공대 설립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2단계사업 추진 등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23일과 24일 이들 동인 기획재정부 소속 향후 간부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연데 이어 예산실장, 국회 부의장 등을 잇따라 만나 내년도 국비 확보에 협조를 당부했다. /최권일 기자 cki@

밝은광주안과의 새 이름

신세계안과

SHINSEGAE

스마일 / 라식 / 라섹
노안 / 백내장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